설교자회의 서윤덕 목사

눅 24:13-25

마음의 불을 지피는 말씀

1 두 제자의 절망 2 만남 이후 증인의 삶

M: 말씀을 들으니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바랐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명망있는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타산지석 삼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신 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른 이들도 있었지만, 이들과 같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에 예수님을 끼워맞춰 따른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자신의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와 빈무덤 같이 겉보기에 상실과 절망의 순간에 모든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에 십자가를 져야하는 상황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 슬픔과 허탈함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의 말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였다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었기에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적 해방에 대한 소망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메시아가 고난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셔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교정될 때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 당하셔야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아 사상이 교정되는 과정을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과 해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발전하고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교묘하게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도구 삼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구석구석 주인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쓴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의해 깨뜨려지고 바르게 교정될 때마다 참 자유와 기쁨에서 나오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전율은 자동적으로 간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두 제자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다가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깨닫게 되자 새로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 전파합니다. 바르게 알게 될 때 바른 증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레 10:1-7

같이만 다른 불 1 다른 불과 심판의 불 하나님을 업신여김 2 거룩의 본질

M: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나는 주의 친구~' 라는 찬양을 청년들이 부르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던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고지식하고 꽉막힌 생각이라 생각했지만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분의 염려에 동감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지나 mz의 산을 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내가 기준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을 거쳐 말씀에 순종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태도의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온갖 물음표만 가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했다가 죽은 사건과 아론과 가족들에게 이를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이며 그 불은 다른 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불에 관한 규정이 언제 어느 부분에서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건은 성냥불이냐, 가스불이냐 불의 종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여긴 대가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같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불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법적인 제사를 거부하시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죽은 아들과 형제를 위하여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고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아론과 아들들은 슬픈 기색을 띄지 말고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였고 그것이 곧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불은 사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여 순종함으로 가져온 불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불순종으로 가져온 불은 다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롬15:16). 이 역시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공시에 거룩을 우리가 확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향하는지 늘 면밀하게 살피는 삶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 가운데 거룩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잘 세워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스며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가지판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야 합니다. 친구처럼 다가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감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설교자회의 서윤덕 목사

레 16:1-10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화목의 길

1 대속죄일 2 거룩으로

M: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6장 1-10절을 통해 대속죄일의 의미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구속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거룩한 날로, 한 해 동안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날입니다. 아론은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마리의 염소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사용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 광야로 살려 보내는 염소로 사용됩니다.

이 특별한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색을 상징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제사를 드렸으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이 구약의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의 피와 희생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의 피로써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대속죄일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화목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되새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상태에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도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대속죄일의 교훈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굳게 서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거룩함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참고자료

오늘을 위한 레위기(김근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D.A. 카슨), 생명의삶플러스, 쳇gpt4.0

설교자회의 서윤덕 목사

레 24:10-16

말의 무게와 믿음의 결단

1 신성모독 2 말의 중요성

M: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레위기 24장 10-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성 모독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와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남자가 신성 모독의 말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처벌로 돌에 맞아 사망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법률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말의 무게를 인식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가볍게 여기며, 그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우리의 한 마디는 빠르게 퍼져 나가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항상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10:19)' 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공동체를 상처입히고 심지어는 분열되게 하기도 합니다. 말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라는 촉구입니다. 오늘날 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말은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주고 받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결단을 새롭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말의 무게를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반영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